■ 제주관광 1번지 서귀포시 중문의 속앓이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잇따라 포함

"관광객 오지말라 할 수도 없고…" 한숨

방역후 문 열어도 기피현상으로 자영업자들 '끙끙'

관광지가 밀집한 서귀포시 중문동 등 일대 상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연이어 포함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다시피 해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고전하던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로 알려지며 손님들이 더욱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찾은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한 식당. 출입문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채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인근의 다른 식당도 문이 잠긴 상태였다. 이 두 곳의 식당은 지난 7일 서울시 구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으로, 방역을 마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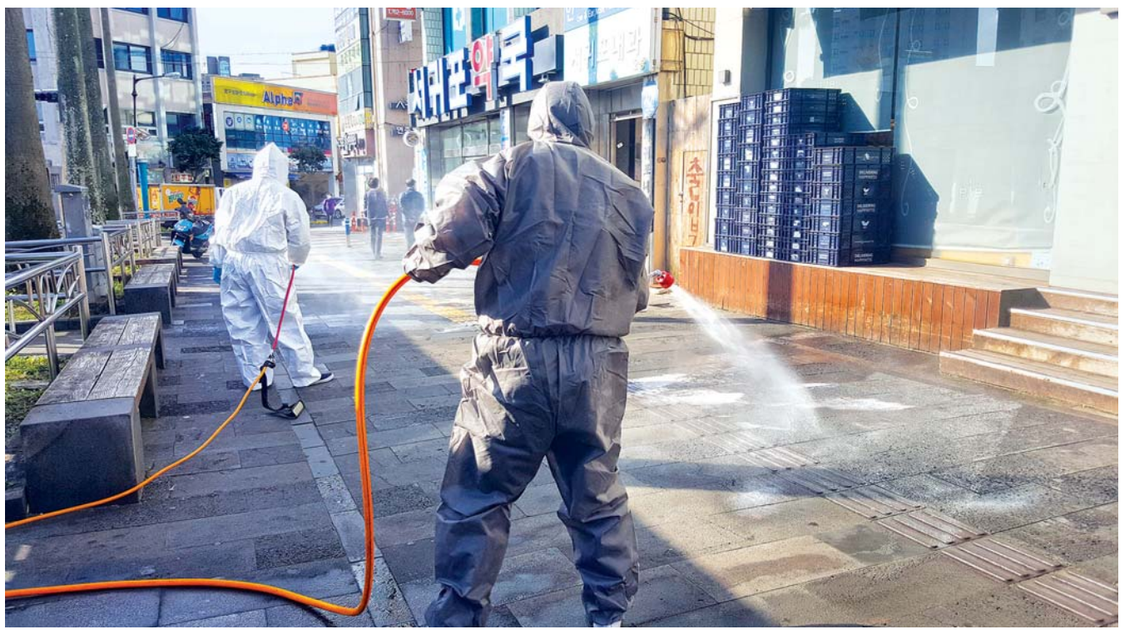
임시휴업에 들어간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전날 서귀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식당을 방문했다는 통보를 듣고 밤잠을 설쳤기 때문이다.

A씨는 "11일 오후 늦게 보건소로부터 처음 확진자 방문 통보를 들었을 때 장난전화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식당에 방문하면서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며 "오늘(12일) 오전 일찍 방역을 실시하고 난 뒤 생각해보니 앞으로 생계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동선 공개는 동시간대 접촉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직접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착잡한 마음뿐"이라며 "방역을 완벽히 마쳤으니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문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6)씨 역시 최근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지난달 코로나19 제주 2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손님이 줄고 매출이 80% 넘게 급감한 상황이다.

이에 김씨는 매출 감소라는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이 날은 방문손님들에게 무료로 고구마를 건넸다. 자비를 들여 군고구마를 구입하고 서비스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적자를 감안한 손님유치 작전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통보받은 직후 가게 문을 닫고 방역을 실시한 뒤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을 재개했지만, 보름여가 지난 현재까지 손님들의 편의점 방문 기피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군고구마 서비스를 해서라도 손님들의 발길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지역경기에 활력이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거리… 1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귀포 약국 앞 도로에서 공무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제주방문 후… 코로나19 확진 잇따라

구로 콜센터 직원 2명 이어 제주서 열흘 체류자 대구서 확진

제주를 방문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 A(40대 여성)씨가 제주에 머물던 지난 7일부터 8일까지의 동선을 확인, 접촉자 53명 가운데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20명을 자가격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동선을 보면 지난 7일 오전 8시40분 대한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뒤 렌터카를 이용, 제주 여행에 나섰다. 숙소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소노캄 제주(구 샤인빌 리조트)를 이용했으며, 카멜리아힐과 맛존디 중문점, 김영갑갤러리, 서귀포약국, 강정포구횟집 등을 방문했다. 8일은 오후 9시5분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거문오름과 인근 사람풍경 식당, 김녕해수욕장 인근 쪼끌락카페, 흑섬 본점, 제주공항 면세점 등을 찾았다.

제주 체류 당시 A씨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돌아다녔으며 함께 여행한 가족 4명은 모두 11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반면 제주에 열흘간 체류한지 이틀만에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제주에 체류한 뒤 대구에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가 이 사실을 인지한 계기는 A씨와 접촉한 적이 있는 제주 거주 B씨가 12일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1일부터 콧물 등 증상을 일으켰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보다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상황이라 제주도가 A씨 동선·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즉시 동선 공개와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3일 금요일 음 2월 19일 (11물)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30%	제 주	3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30%

흐림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8~9℃, 낮 최고 기온은 13~15℃에 머물겠다. 천문조에 의해 만조 시 물결이 해안가 저지대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뜸 06:47 해짐 18:40	달뜸 22:48 달짐 09:13
물때	만조 00:58 13:08	간조 07:29 19:48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6/10℃
모레	구름 많음	8/1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자연유산해설사 116명 활동 중단

탐방객·해설사 안전 차원 거문오름 등은 정상 운영

코로나19 여파로 100명이 넘는 제주지역 세계자연유산해설사들의 해설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12일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탐방객과 해설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자연유산해설 활동이 지난 9일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거문오름에 배치된 37명을 비롯해 세계자연유산센터 6명 성산 일출봉 27명, 만장굴 23명, 비자림 23명 등 116명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활동을 멈췄다.

해설 활동 중단 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이다. 이들 세계자연유산해설사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해설 활동을 해왔으며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만 지급 받았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 A씨는 "어차피 실비 형식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소액이지만 그래도 용돈에 보탤 정도는 됐었다"면서 "해설 활동이 중단된 이후부터는 집에만 머물고 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구로 콜센터 직원이 지난 8일 오전 거문오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발열 검사를 담당했던 해설사 1명과 확진자 가족, 오름을 등반한 해설사 1명 등 모두 2명이 자가격리됐다.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 관계자는 "해설사 활동만 중단했을 뿐 세계유산센터를 제외한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